

한국 포크음악의 발전을 이끌어 낸 변안가요

원재웅*, 조태선**
*관동대학교 음악학과,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wjwoong@hanmail.net
**e-mail:entheos@korea.com

The Adaptrd Songs as a significant impact of the development on the Korean folk music

Jaewoong Won*, TaeSeon Cho**
*Dept of Music, Kwandong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 역할을 담당했던 포크음악의 태동과 발전을 이끌어 낸 변안가요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1. 서 론

포크의 출발과 변안가요

1960년대 후반 한국 대중음악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트로트와 스탠다드 팝으로 양분되어 있던 주류 시장을 재편하는 포크 열풍의 시작이다. 포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미8군 쇼 등을 통해 훈련되어진 가수, 그룹사운드, 전문 직업 작곡가들에 의해서 음악이 만들어지던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포크음악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대학생들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기타를 들고 라디오와 음악 감상실을 통해 애청하던 팝송들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대중을 향해 불리어지던 대중음악이 대중들이 직접 만들어가며 함께 하는 음악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한국적 포크의 발전에 큰 밑거름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싱얼롱 운동’이다. ‘싱얼롱 운동’이란 1960년대 중반 시작된 ‘함께 노래 부르기 문화’로서 ‘Sing along with Y’라는 모임을 주도한 전석환에 의해 1965년 4월 3일 서울 YWCA 본부에서 첫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후 1966년 KBS TV의 ‘노래의 메아리’와 1972년 TBC TV의 ‘노래는 즐거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선풍을 불러와 ‘싱얼롱’ 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게 된다. ‘밝고 건전하고 활기 찬 노래를 함

께 부름으로써 희망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의 ‘싱얼롱 운동’은 노래를 통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 체험을 통해 1970년대 통기타 혁명을 일으키는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빅밴드 혹은 그룹사운드에 의해 연주되던 음악들은 점차 기타 하나에 의존하는 음악으로 조금씩 변모해갔으며 이러한 변화의 지점에 조영남, 트윈 폴리오, 서유석 등 포크 1세대들이 위치한다. 1960년대 미국의 청년문화 형성의 한 국면인 포크송의 영향하에 전개된 새로운 노래운동인 포크의 열풍은 가요계 밖의 활동으로부터 유래하였다. 통기타 부대로 속칭되는 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등이 포크음악에 영향을 받아 음악감상실 <세시봉>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이들 아마추어 그룹들은 이백천씨의 후원으로 YWCA에서 [청개구리]라는 노래모임을 만들어 김도향, 김민기, 송창식, 양희은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조영남의 ‘딜라일라’(1968), 트윈 폴리오(당시 튜폴리오로 불림)의 ‘하얀 손수건’(1969), 뚜아 에 무아(뚜와 에 무와)의 ‘약속’(1970), 라나 에 로스포의 ‘사랑해’(1970) 등이 수록된 음반들은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음반업계에서도 파란을 일으켰다.¹⁾ 그들이 당시 발표한 음악들은 엄격히 따지면 미국 포크운동을

계승한 정통포크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했지만, 미국의 팝송과 세계 각국의 민요, 샹송, 칸쪼네 등 다양한 음악을 포크의 형태를 빌려와 연주 노래함으로써 한국 포크의 문을 열었다고 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포크 계열의 가수들이 발표한 음반에는 창작곡은 찾아보기 힘들고 거의 모든 곡들이 번안곡으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창작곡의 비율은 높아지고 한국 포크계에서도 진정한 싱어송라이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된다.

트윈폴리오의 '하얀손수건'과 '웨딩케익'이 수록된 그들의 정규앨범을 통해 포크 1세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1970년대 본격적인 포크시대의 음악들과 비교했을 때 정통적인 포크와는 거리가 있는 번안가요 중심의 앨범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창작곡 중심의 포크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중심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2. 본론

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를 이룬 포크

1970년대 문화의 중심에는 통기타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전국을 통기타 열풍으로 휩싸이게 만든 음악은 바로 포크였다. 1960년대 말부터 불어 닥친 통기타의 유행으로 포크의 전성기가 시작된다. 조영남, 트윈 폴리오, 서유석을 비롯해서 음반을 발표한 뮤지션들은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 시작하며 1970년대 초반의 포크의 바람을 주도한다.

아마추어 가수에서 시작한 이 통기타 1세대 가수들은 '세시봉' 등의 음악 감상실에서 데뷔를 하여 줄줄이 방송계로 진출을 하게 된다. 1969년 10월 9일자 '일간스포츠' 4면에는 <가요계의 새 풍토 - 출세하려면 기타 메고 살롱으로 / 거의 학생가수들, 참신한 멋>이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실리고 조영남, 트윈폴리오, 조혜연, 투 에이스, 서유석, 코코브라더즈(박상규, 장영기 듀엣), 서수남 등 당시 각종 살롱에서 노래하고 있는 포크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있다.

1970년 12월 28일자에는 <사이키 붐 이제 한물간 듯, 살롱가에 활개치는 새 총아 포크 그룹 '아미고스' 선봉>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에서 다운타운의 대규모 살롱에 진출한 서유석, 송창식, 아미고스(윤원형, 윤승철 듀엣) 등 포크 뮤지션들에 대해 언급한다.

1971년 10월 9일자 8면에는 <살롱가 - 톱 클래스 가수들로 밀도 높은 쇼 구성, 젊은 층 호기심 자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투코리아, 이용복, 이연실, 양희은, 아미고스, 서유석 등 이미지가 밝은 포크계열 톱 클래스 가수들로 구성된 밀도 높은 쇼 구성이 젊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볼 때 1970년대 초반으로 들어서면서 그룹사운드들이 독점하고 있던 다운타운의 살롱 무대를 대학생 출신의 포크 가수들이 잠식해가면서 1970년대의 포크 붐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60년대 후반부터 방송에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당시 각 라디오 방송국의 경쟁적인 심야방송 기획에 의한 것이다. 문화방송의 「한밤의 음악편지」(DJ 임국희), 동아방송의 「여러분의 뮤직살롱」(DJ 한순옥), 동아방송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DJ 이성화)가 잇달아 방송되며, 이후 윤형주, 서유석 등 통기타 가수들이 직접 DJ를 맡는 형식으로 변화되며 이들은 기성가수로 변모하게 되었다.²⁾ 이렇듯 젊은 포크 뮤지션들이 주요 살롱무대와 민방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장악하면서 그들과 거의 같은 세대인 청취자들과 일체감을 형성하며 그들 속에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된다.

이후 1975년 대마초 과동으로 포크의 바람이 주춤하게 될 때까지, 통기타와 포크 음악은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그 포크음악의 선봉에는 아마추어 학생가수로 시작해서 대스타까지 발돋움한 포크 뮤지션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음악이 존재하게 해주었던 시작점은 역시 번안곡이다. 외국의 팝송을 우리말로 번안하면서 간단한 기타 연주에 의지하여 시작했던 포크가 197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만나면서 통기타 청바지 문화를 만들어내며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 초반에 발표된 포크 앨범은 대부분 번안곡으로 채워져 있다. 1968년부터 1971년에 이르는 4년간의 포크 앨범의 창작곡 비율이 34-35%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창작곡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그 비율은 1975년엔 85%, 1976년엔 74%에 이르게 된다. 그만큼 포크 음악 초창기에는 번안곡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후 창작곡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긴 했지만 번안은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 최초의 포크 싱어송

1) 신현준, 「한국 팝의 고고학 1960」, 한길아트, 2005, p326

2) 박윤우, 「해방후 대중가요의 사회사」, 『노래』 제2집 (실천문학사), 1984, p139

라이터라 불릴수 있는 김민기의 음반이 1971년 발표되기 전까지 많은 포크가수들은 번안곡과 창작곡을 함께 음반에 실어 발표한다. 트윈폴리오 해체 이후 솔로 활동을 계속해온 송창식, 윤형주를 비롯해서 뚜아에무아, 라나에로스포, 양병집, 양희은, 이연실 등 대부분의 한국모던포크의 가수들은 번안곡을 연주한다.³⁾

3. 결 론

번안곡이 한국 포크의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

1960년대 후반 초창기 한국 모던포크 음악사는 번안곡의 전성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번안곡의 텍스트들이 포크 뮤지션들의 앨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장르에 비해 포크음악에 번안곡이 많았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

당시 포크음악 생산자들이 주로 학생 아마추어 뮤지션이었다. 이들은 프로 음악가들이 아니었고 정규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은 이들이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창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대학가의 스타들이었지 직업 음악가가 아니었으므로 프로 의식이라든가 곡을 창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대중음악 시장과 방송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음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이들 포크음악 담당자들이 우선은 평소 아마추어 무대에서 자신들이 즐겨 부르던 외국 팝 음악을 통기타 반주로 녹음하여 손쉽게 앨범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들 중에는 이후 아티스트로서의 자각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거듭하여 창작과 편곡 능력을 갖게 되는 이들도 있었지만 끝내 창작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많은 뮤지션들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성 작곡가들의 도움을 받아 앨범을 제작하게 되었고 따라서 스탠더드 팝 등 기성의 주류음악 문법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초까지도 포크 뮤지션들은 기성의 작곡가들이 만들어주는 노래들을 잘 부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따라서 1971년까지는 번안곡을 중심으로 하는 포크 앨범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트로트와 스탠더드 팝 등 주류 음악의 텍스트 생산에만 치우쳐서,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음

악에 대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메이저 음반 회사들과 음반 산업계의 주먹구구식 경영 마인드와 근시안적인 시각에도 그 원인이 있다. 주류 음악 생산에만 급급했던 결과 이들이 만들어 내는 텍스트들은 중요한 대중음악의 수용자 층으로 등장한 청년들의 음악적 기호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고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손쉽게 그 정서적 공백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을 결국 번안곡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모던포크 음악은 그 형성 과정에서부터 자국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했으므로 문학적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서양 대중음악 수용자들은 그 텍스트의 문화적인 면보다는 음악적인 면에 치우쳐서 서양 대중음악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따라서 한국의 포크 음악은 미국의 포크음악과는 상당히 다른 발전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포크음악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수용 자세는 이후 한국에서 포크음악에 대한 정의를 상당히 애매하고 폭넓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으며 당시 대중의 포크음악에 대한 인식 역시 ‘기존의 트로트나 스탠더드 팝 음악이 아니면 동시에 밴드구성의 음악도 아닌 음악’ 정도의 막연한 상태에 머무르게 했던 것이다.⁴⁾ 번안곡의 범람으로 인해 선율과 리듬 등 음악적 텍스트와 노랫말이라는 문학적 텍스트가 일체감을 갖지 못하는 노래들을 다수 생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두 지역의 정서적 차이를 단순한 번역이 아닌 번안이나 개사라는 재창조 작업을 통해서 극복해보려고 했으나 결국 그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참고문헌

- [1] 신현준, 「한국 팝의 고고학 1960」, 한길아트, 2005
- [2] 박윤우, 「해방후 대중가요의 사회사」, 『노래』 제2집 (실천문학사), 1984
- [3] 원재웅, 「1960년대 번안가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덕여자대학교) 2008
- [4] 박기영, 「이식 그리고 독립 : 한국 모던포크 음악의 성립과정」,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2003

3) 원재웅, 「1960년대 번안가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덕여자대학교) 2008, p108-109

4) 박기영, 「이식 그리고 독립 : 한국 모던포크 음악의 성립과정」,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2003, p165